

최적성이론과 영어차용어의 음절말자음에 대하여*

박 천 배

(원광대학교)

Park, Cheon-Bae. 2000. A Study on Optimality Theory and English Loanwords with Obstruent Codas.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41-257.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English words are borrowed into the Korean lexicon. It points out that the process of borrowing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using phonological evaluation to pronounce a phrase or a sentence, *i.e.*, that they belong to separate levels. In some cases, where two forms, one with a coda and the other with an inserted vowel, are derived from only one English word, it is argued what matters is the release of a final coda consonant.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da obstruent [t] with no release should be stored as /s/ in the Korean lexicon. Consequently, English *bus*([bʌs]) is stored as /pʌsi/ in the Korean lexicon while Korean 벗([pɐt] 'friend') has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of /pʌs/. They are destined to suffer the same set of constraints in order to be evaluated as their respective optimal output form. (Wonkwang University)

1. 들어가기

Silverman(1992)은 차용어 음운론은 모국어 음운론과 별개의 것이며, 인지적 단계와 운용적 단계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의 모델에서의 출력형(outpu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모호하나, 이 논문이 쓰인 시점을 감안하면, 모국어 화자가 들은 외국어를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인 후에 모국어로 발화할 때 모국어 어휘와 공기(co-occur)하는 차용어의 실제 발음(phonetic representations) 또는 최소한 음성적 실현과정(phonetic implementation)을 거치기 직전의 음운론적 표면 형태(phonological surface representation)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 본 연구는 1999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일반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표 1. Silverman의 차용어 음운론 모델

Silverman의 차용어 설명 모델이 최적성 이론의 발전보다 일찍 이루어진 까닭에 그의 이론에서의 SCANSION 1과 SCANSION 2는 근래에는 최적성이론의 틀에 맞추어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은(2001fc)은 이 두 단계를 우선순위가 다른 두 평가 시스템 즉 외국어 어휘에 존재하는 이국적 음소를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로 대치하는 역할을 하는 제 1의 평가 과정과 외국어 어휘에만 존재하는 음절 구조를 모국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음절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제 2의 평가 과정으로 각각 번안하여 이해하고 있다. Silverman의 가설들 중 하나는 차용어는 차용어를 들여오는 언어(borrowing language, host language)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어(source language)의 음운론적 특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 논문에서

1. 오미라(1996: 125-126)는 한국어와 광둥어의 영어차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원어의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정보에 관계없이 음성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는 Silverman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지는 일반적인 음성 정보보다는 오히려 원어의

논의하려는 것은 Silverman(1992)의 모델 자체보다는 최적성 이론에서 차용어를 평가하여 올바른 차용어의 형태를 산출한다고 이해되고 있는 두 단계의 평가 과정이다.

Bauer(1985)는 광동어 어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음절들이 차용어에서는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하지만, 이들 중의 대다수는 음소배열 규칙(phonotactic restrictions)을 어기지 않으므로 모국어의 어휘목록에는 나타날 수 있는 우연한 공백(accidental gap)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서 광동어의 음소배열 규칙을 어기는 소수의 예외도 실은 의성어에서 발견되는 구조라고 말한다.²⁾

Yip(1993)은 Bauer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지 차용어를 들여오는 언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차용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차용어 음운론이라고 부를 뿐이므로 차용어 음운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차용어를 들여오는 언어의 음운론이 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Itô & Mester(1995)는 어휘 계층을 핵심구조(Core Structure)와 주변구조(Periphery Structure)로 구분하였으며, 전자에는 모국어 어휘가 속하고, 후자에는 차용어와 외국어 어휘가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들은 차용어와 외국어를 동화된 정도에 따라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모국어 어휘를 평가하는 제약들과 차용어나 외국어를 평가하는 제약들은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모국어 어휘일수록 더 많은 제약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UG를 표방하고 있는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집합의 제약들로부터 파생하는 서열 순서가 다른 제약들의 여러 세트를 상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국어 어휘에는 제약이 더 많이, 외국어 어휘에는 제약이 더 적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좀더 호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보다 더 일본어적인 제약들이 있으며, 모국어 어휘에서 멀어질수록, 적용되어야 하는 일본어 특유의 제약의 개수는 적어지는 반면, 일본어에 나타나지 않는 음절구조나 음소들이 쓰일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Yip(1993)과 Itô & Mester(1995)를 비교해보면 그들의 차용어에 대한 입

음운적 구조에 대하여 목표어의 사용자가 얼마나 민감한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2. Bauer, Robert (1985) "The Expanding Syllabary of Hong Kong Cantonese," *Cahiers de Linguistique Asie Orientale*, Vol XIV.1, 99-111. Yip(1993: 287)에서 재인용.

장은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ip은 차용어 음운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근원어의 어휘에, 차용하는 언어의 순위가 매겨진 제약들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Itô & Mester는 모국어 어휘와 차용 어휘의 종류에 따라 제약들의 우선 순위가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의 외래어 차용어만큼 많은 단계는 아니라도 그들의 모델에 의하여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는 차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설을 받아들이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³⁾

표 2. Itô & Mester(1995)의 동화의 정도에 따른 차용어 분류

이전에 한국어의 영어 차용어를 최적성 이론을 통하여 분석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강옥미 1996, Oh 1996, Kang 1996, Yoo 1996, Kang 1999, 구분석 1999, 정은 2001fc 등) 많은 논문들은 차용어로 들어온 외국어도, 모국어의 어휘도 제약에 대한 동일한 층위의 입력형(input)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며,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하나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차용어로 가져오는 외국어의 낱말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 표면형으로서의 입력형(LP input)이고, 우리말의 어휘목록에서 가져오는 형태는 실현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입력형(input)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입력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외국어 낱말은 차용어로 들어오기 위해서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의

3. 단, 두음법칙과 관련된 제약처럼 각 어휘 계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약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 한국어 어휘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제약의 서열 순서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어의 모국어 화자가 낼 수 있고 또 내기 쉬운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 때 이용되는 음운론적 제약들의 집합은, 국어 어휘목록의 어휘항목(즉 형태소)들을 형태론적인 규칙과 통사적인 순서에 알맞게 소리의 연속체로 배열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또는 최적성이론의 관점으로 말하면 평가를 통해 걸러내는, 제약들의 집합과는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같다고 해도 그 구성 요소인 제약들의 서열은 약간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도입된 영어차용어의 음절말 자음들을 살펴보고 그 자음들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설정(coronal) 자질을 가진 저해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국어의 음운적 평가 과정에 대한 적절한 입력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최적성이론의 입장에서 입력형 또는 출력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각각 두 종류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음절말 폐쇄음의 두 형태 즉 파열음과 비파열음이 한국어의 어휘로 도입되는 영어차용어에 있어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적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파열된 영어의 음절말 [t]는 한국어에서 /s/로 어휘화된다고 가정해야만 연음시에 [s](또는 [ʃ])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⁴⁾

2. 영어 차용어와 음절말 폐쇄음

2.1 한국어의 음절말 불파현상 및 연음 현상

영어의 음절말 자음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한국어에서 발화되는 단어의 음절말 저해음은 모두 불파음으로 소리난다.

(1)	a. [t ^h op]	'saw'	*[t ^h op ^h]
	b. [sup]	'forest'	*[sup ^h]
	c. [pat]	'field'	*[pat ^h]

4.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은 이보림 외(1999)의 논문 작업 중에, 또는 이보림과의 학문적인 토론 가운데에서 논의된 부분을 발전시킨 것임.

d. [mit]	'under'	*[mit ^h]
e. [mak]	'scene'	*[mak ^h]
f. [puək]	'kitchen'	*[puək ^h]
g. [tət]	'trap'	*[tət ^h]
h. [pəsət]	'mushroom'	*[pəsəs], *[pəsət ^h]

그러면 한국어의 모든 형태소는 기저에서도 어말에 불과음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4)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모국어 화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 형태소의 어말에서 불과음이 오거나 파열음이 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한다.

는
둘째, 한국어에서 발화되는 단어의 음절은 일반적으로 (C)V(C)로 되어 있다.

- (2) a. [pom] 'spring'
b. [top] 'saw'

어간 말미에 두 개의 연속된 자음을 가지는 어휘항목(즉 형태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음절말 자음은 발화시에는 단 하나만 허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기저에서 어휘의 말미에 둘 이상의 연속된 자음이 온다고 해도 아래와 같이 독립적으로 발화될 때에는 하나의 자음만 음절말에 허용될 뿐이다.

- (3) a. [kap] 'price' *[kaps]
b. [mok] 'share' *[moks]
c. [sak] 'wage' *[saks]
d. [tak] 'chicken' *[talk]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는 어떤 어휘항목이 어말에 두 개의 연속된 자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는 그 항목이 교체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어휘 항목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첨가될 때는 고립된 형태에는 나타나지 않던 자음이 출현하기 때문에 고립 형태에 실현되는 자음 외에도 또 하나의 자음이 목록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한국어에서 어간의 음절말 자음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첨가될 때에 후속 음절의 음절초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중추 내의 어휘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간의 음절말 자음은 어간이 되는 형태소의 독립된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의 어미를 포함하는 음절의 초성 위치에 나타나는 음소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 (4) a. [tamiɪ] (←tam + iɪ) 'put in + fut.'
 b. [siniɪ] (←sin + iɪ) 'put on + fut.'
 c. [capɪɪ] (←cap + iɪ) 'catch + fut.'
 e. [tatiɪ] (←tat + iɪ) 'close + fut.'
 f. [s'ækɪɪ] (←sæk + iɪ) 'go rotten + fut.'
 g. [dak'ɪɪ] (←dak' + iɪ) 'wash + fut.'
 h. [pəsɪɪ] (←pəs + iɪ) 'take off + fut.'
 i. [chaciɪ] (←chac + iɪ) 'find + fut.'
- (5) a. [kap.siɪ] (←kaps + iɪ) 'price + obj.'
 b. [mok.siɪ] (←moks + iɪ) 'share + obj.'
 c. [sak.si] (←saks + i) 'fee + subj. '
 d. [tal.ki] (←talk + i) 'chicken + subj.'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ɪ/)” 또는 “-이(/i/)”가 첨가되어 어간의 음절말 자음이 후속 음절의 음절초가 될 때 입력형에서 어간의 음절말 자음이 무엇인지는 후속 음절의 음절초가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2.2 한국어 어휘의 입력형에서의 어말 /s/와 /t/

다음 두 단어의 독립된 형태와 접미사가 첨가된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기저형에서의 형태를 유추해 보기로 하자.

- (6) a. [mit] *[mit^h] ɪ 'under'
 b. [pəsət] *[pəsəs], *[pəsət^h] 'mushroom'

- (7) a. *[mite] [mit^he] 'at under'
 b. *[pəsətɪl] [pəsəsɪl], *[pəsət^hɪl] 'fungus + obj.'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는 어떤 어휘의 기저형을 자신의 어휘 목록에 내재화할 때, 그 어휘의 고립형만을 이용한다면 올바른 어휘 목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립형태의 발화형뿐만이 아니라 접미사가 첨가된 어휘의 발화된 형태를 참조함으로써 어휘사전에서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출력형으로부터 유추된 올바른 기저형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8) a. */mit/ /mit^h/ 'under'
 b. */pəsət/ /pəsəs/ 'fung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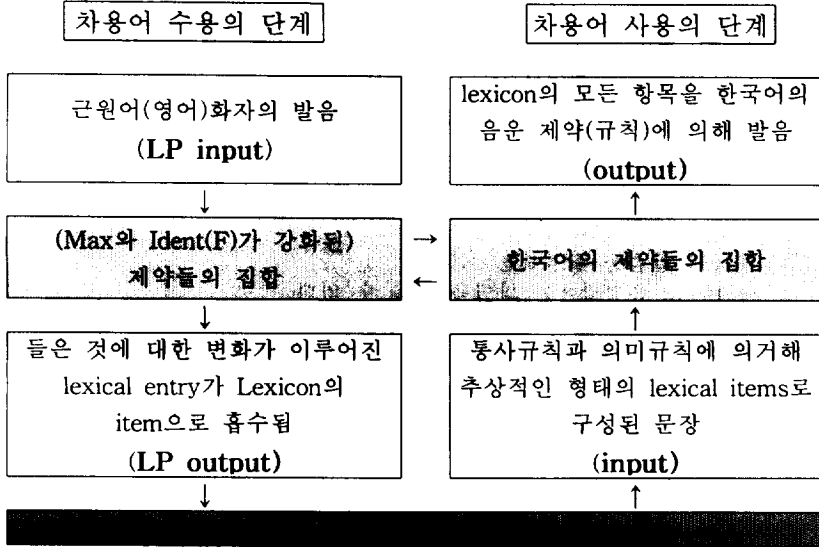
위의 사실은 영어 차용어에서의 음절말 [t]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며, 2.4. 절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2.3 영어 차용어에서의 불파음과 파열음

차용어 수용의 단계에서는 최대한 원어민의 발음을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론적인 제약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차용어의 자질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수전략(repair strategy)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정은(2001fc.)이 가정하는 것처럼 Silverman의 모델에서 차용어 인지의 단계가 외국어를 한국어의 어휘목록의 항목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고 운용의 단계가 어휘 항목을 입력형으로 취하여 여러 후보형태들이 제약들에 의한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면 이 차용어 운용 단계의 제약들은 모국어 사용의 단계의 제약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로 다르다는 말은 물론 최적성이론의 관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제약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제약들의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Silverman의 모델에서의 근원어 화자의 발음을 인지하는 단계와 운용의 단계가 합쳐져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차용어 수용의 단계를 이루고 차용어 사용 단계에서는 어휘목록의 모든 항목이 한국어의 음운 제약(규칙)에 의해 발음된다고 가정한다.⁵⁾

표 3. 차용어의 수용단계와 사용단계의 개념도



영어의 *hook*은 한국어에서 “훅” 또는 “후크”의 두 가지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기(co-occur)하는 두 가지 발음의 원인은 보통 DEP-IO와 IDENT (released)의 서열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강옥미(1996: 142)는 “영어의 어말 파열음 /p, t, k/를 [p, t, k]나 [p^h, t^h, k^h]로 인식함에 따라 두 개의 입력형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두 개의 출력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EP-IO와 MAX-IO와의 등급의 적용 순서의 차이 때문에 다른 출력형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구분석(1999)에서도 제약의 서열의 차이가 두 가지 발음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논문은 공기하는 두 가지 발음의 원인은 음절말의 파열성 인지(perception) 여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⁶⁾ 서로 다른 출력형이 가능한 것은 제약의 서열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력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비파열 음절말을 가진 [huk]

5. 표 3 안의 LP는 Loanword Phonology의 줄임말이다.

6. 이보림 외(1999)는 영어 차용어의 음절말 파열음의 파열성이 무표 삼입모음 /ɪ/로 인지된다는 점을 완곡히 주장하고 있다.

는 그대로 /huk/이 되어 우리말의 어휘 목록에 차용되지만 파열 음절말을 가진 [huk^h]는 /huk^h/로 보수(repair)되어 차용된다고 가정한다. 그 때 이러한 변화(또는 조작)의 과정을 제어하는 원리는 “입력형에 될 수 있는 한 충실하라”는 충실성의 원리(McCarthy & Prince 1995)가 되겠으나, 이 경우에는 입력형이 ‘어휘의 기저형’이 아니라 ‘인지된 발음’이 된다. 이 두 형태를 각각 어휘 항목으로 받아들이는 평가 과정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약이 사용되어야 한다.

- (9) 외국어 발음을 평가하는 제약들
 - a. *rel_{cop}: 음절말에는 파열음이 올 수 없다.
 - b. ID(rel) : 입력형의 파열성은 출력형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c. DEP(i): 입력형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은 출력형에 나타날 수 없다.

이 제약들을 이용한 cook의 평가 과정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4. 영어 cook의 차용 과정

LP input [huk]	*rel _{cop}	ID(rel)	DEP(i)
huk ^h	*!	*	
huk ^h i		*!	*
☞ huk			
LP input [huk ^h]			
huk ^h	*!		
☞ huk ^h i			*
huk		*!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제약 순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형태가 출력형으로 선택될 수 있다.

2.4 영어 차용어에서의 음절말 [t]의 문제

영어의 robot이 한국어에서 “로봇” 또는 “로보트”의 두 가지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논의한 hook와 동일하다. 그러나 [t]는 [k]나 [p]와 같은 다른 폐쇄음과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하

나의 중요한 주장이다. 즉, 비파열 폐쇄음인 [t]는 어휘 목록에는 /s/로 바뀌어 저장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파열 [t]를 포함하는 [rowbat]은 /robos/로 그리고 파열 음절말을 가진 [rowbat^h]는 /roboti/로 보수(repair)되어 우리말의 어휘 목록에 차용된다.⁷⁾ robot이 /robos/로 변화하여 흡수되는 이유는 “ㅅ” 받침으로 끝나는 수많은 한국어 어휘와의 유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에서 음절말에서 무성폐쇄음 [t]로 실현되는 자음은 “ㄷ”(/t/), “ㅌ”(/t^h/), “ㅈ”(/c/), “ㅊ”(/c^h/) 또는 “ㅅ”(/s/)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절말 음소를 가진 어휘들은 모두 어미 “ㅏ”(/a/)나 토씨 “ㄱ”(/ɛ/) 등의 앞에서 “ㄷ”(/t/), “ㅌ”(/t^h/), “ㅈ”(/c/), “ㅊ”(/c^h/) 또는 “ㅅ”(/s/)으로 각각 실현되므로, 이러한 발음을 ‘들은’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는 그 ‘중거’에 의기하여 각 어휘에 대하여 그러한 자음들이 입력형에 들어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 (10) a. /mit^h/ → [mit^he] cf. *[mise] ‘at under’
 b. /pəsəs/ → [pəsəsɪl] cf. *[pəsət^hɪl] ‘fungus + obj.’

그러나 후속어미의 모음이 없이 고립되어 무성폐쇄음 [t]로 실현될 뿐, 모음으로 시작하는 토씨나 어미가 첨가된 발화 형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어휘 즉 차용어의 경우는 어휘목록에서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져야 하는가? 이는 음운론에서 몹시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어휘 형태가 바로 평가 과정의 입력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문장 속에서 쓰이는 영어 차용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간접적이지만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후속어미의 모음이 없이 고립되어 불과 무성폐쇄음 [t]로 실현되는 영어의 어휘는 차용되어 한국어의 어휘로 자리잡을 때 음절말에 /s/를 가진 것으로 저장된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영어 차용어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토씨가 올 때 차용어의 어말 자음은 음절초의 [s]로 발음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ㄷ” 받침 즉 음절말(coda)의 무표 비조찰성 설정(default nonstrident coronal)자음의 기저(또는 입력)형은 /t/가

7. 이중모음 [ow]는 보통 두 개의 모음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rainbow [reynbou]는 /reinbou/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robot의 [ow]가 [o]로 단순모음화하는 것이나 둘째 음절의 [a]가 /o/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철자의 영향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 /s/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 외에는 모두 /s/음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음절말이 [s]로 실현되는 한국어 형태소가 없으며, 어간 또는 낱말의 마지막 분절음이 표면형에서 [s]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다른 접미어와 결합하여 음절초에 올 때뿐이기 때문에, 한국어 형태소의 기저형에서 모음 뒤에 오는 /s/의 존재 여부는 음운 현상을 역추적함으로써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s/가 한국어의 무표적인 음절말 비조찰성 설정자음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추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용어에서의 음운현상을 통하여 /s/가 무표적(default)인 모음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음에서도 최소한 음절말에 한해서만은 /s/가 무표적인 요소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음절말이 불파음 [t]로 끝나는 모든 차용어의 어휘 형태가 기저에서 /s/라는 음절말 요소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휘목록에 /s/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절말에서 불파음 [t]를 /s/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대조적으로 동일한 영어 단어가 파열음 [tʰ]로 끝나는 경우 /si/가 아니라 /tʰi/를 가진 것으로 어휘목록에 저장되기 때문에, 더욱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음절말의 무표 비조찰성 설정 자음 [t]의 기저형이 바로 /s/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⁸⁾

음절말 파열음 [tʰ]가 기저형태 /tʰi/를 가진 것으로 어휘목록에 저장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미 음절말 [k]를 논의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음절말에는 파열음이 올 수 없다. 그 파열음 [tʰ]를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열음을 무시하고 [tʰ]를 불파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음절구조를 바꾸어 음절말에 있던 파열음이 음절초에 오도록 보수(repair)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는 영어의 *robot*이 한국어에서 “로봇” 또는 “로보트”의 두 가지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하나의 제약 순위로 설명하고 있다. 여

8. 이 주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다른 현상이 있다. 소위 사이 ‘ㅅ’의 삽입 현상으로 알려진 자음경음화 현상에서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사가 [s]로 발음되는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표 설정 자음인 ‘/s/’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의 물(næ + mul)’이 ‘넷물’이 되는 경우 ‘næ’와 ‘mul’ 사이에 무표 자음인 ‘s’가 들어가 있는 /næ + s + mul/이 입력형이 되며, 제약들의 평가를 통해 [nænmul]로 표면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자체적인 증거는 결여되어 있으나 최소한 철자상 “ㅅ”이 쓰이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서 주의해야 할 제약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절말의 위치에서 비파열 비조찰성 설정 자음을 디폴트인 /s/로 선언하는 제약 $s]_{\text{COD}}$ 이다. 또 하나는 파열성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ID(\text{rel})$ 과 모음을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DEP(i)$ 이 동시에 둘다 어겨지는 것을 금지하는 연합 제약 $ID(\text{rel})$ & $DEP(i)$ 의 존재이다.⁹⁾

- (11) a. $s]_{\text{COD}}$: 음절말의 위치에서 비파열 비조찰성 설정 자음의 기저형은 /s/이다.
- b. 연합 제약 $ID(\text{rel})$ & $DEP(i)$: 파열성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ID(\text{rel})$ 과 모음을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DEP(i)$ 을 동시에 둘다 어길 수 없다.

표 5 영어 *robot*의 차용 과정

LP input [rowbat]	$ID(\text{rel})$ & $DEP(i)$	$s]_{\text{COD}}$	$*\text{rel}]_{\text{COD}}$	$ID(\text{rel})$	$DEP(i)$
☞robos			*	*	
robot ⁿ		*!	*	*	
robot ⁿ i	*!		*	*	*
robot		*!	*	*	

LP input [rowbat ⁿ]	$ID(\text{rel})$ & $DEP(i)$	$s]_{\text{COD}}$	$*\text{rel}]_{\text{COD}}$	$ID(\text{rel})$	$DEP(i)$
robos			*!		
robot ⁿ		*!	*	*	
☞robot ⁿ i					*
robot		*!	*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11)의 제약들은 *robot*의 서로 다른 출력형인 두 가지 어휘 항목을 올바르게 평가해낸다. 그러나 그 제약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특히 $s]_{\text{COD}}$ 가 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다른 *hook*의 두 가지 어휘 형태 중 [huk]을 올바르게 평가 할 수 없다.

9. 연합 제약(conjoined constraints)은 각각 독립적인 두 제약이 있을 때에 그 두 제약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각 제약의 서열 보다 더 높은 서열의 제약을 위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제약이다. 이러한 다른 예에 관해서는 Kirchner(1996) 및 Kang & Kang(2000)을 참조하라.

표 7 영어 *hook*의 차용 과정(⊙는 최적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출력형)

LP input [huk]	ID(rel) & DEP(i)	s _{cod}	*rel _{cod}	ID(rel)	DEP(i)
☞hus			*	*	
huk ^h		*!	*	*	*
huk ^h i	*!		*	*	*
⊙huk		*!			

이 제약들이 외래어의 차용 과정에 필요하다면 *hook*의 차용어 형태로 /huk/대신 /hus/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다른 제약들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설정(coronal) 자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IDENT-IO** 제약이 작용한다.¹⁰⁾

(12) **ID(±cor)**: 출력형의 설정 자질은 입력형의 설정 자질과 같다.

표 8 **ID(±cor)**을 도입한 영어 *hook*의 차용 과정

LP input [huk]	ID(±cor)	ID(rel) & DEP(i)	s _{cod}	*rel _{cod}	ID(rel)	DEP(i)
hus	*!					
huk ^h			*	*!	*	*
huk ^h i		*!		*	*	*
☞huk			*			
LP input [huk^h]						
hus	*!			*		
huk ^h			*!	*		
☞huk ^h i						*
huk			*!			

10. [c^h]와 같은 입력형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ID(+str): 출력형의 [+조찰성(+strident) 자질]은 입력형의 설정자질과 같다."는 제약도 필요하나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2.5 영어 차용 과정과 한국어 어휘 수용 과정의 비교

마지막으로 *bus*의 차용형태를 논의하기로 한다. 보통 *bus*의 차용형태를 /bus/로 입력형을 잡고 한국어의 “벗(/pɐs/)”과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제약 순서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서로 제약들의 서열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은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차용어 음운론을 다룬 논문들은 차용어 음운론의 출력형태가 한국어 음운론의 입력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출력형태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장은 어휘 수용의 단계에서 어휘 목록에 영어의 *bus* [bəs]와 한국어의 “벗([pɐt])”은 거의 같은 서열을 가진 제약들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bus* [bəs]는 /bɐsi/로, ‘벗’은 /bɐs/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된다는 것이다. 영어의 *bus* [bəs]가 차용될 때에는 coda의 [s]를 살리기 위한 /i/의 삽입은 물론 어휘목록에 차용어가 기록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물론 어휘 사용의 단계에서도 이 둘은 각각 같은 서열을 가진 제약들의 의해서 평가되는데, 입력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출력형도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다.

표 9 영어 *bus*의 차용과정과 한국어 “벗”의 어휘수용과정의 비교

LP input [bəs]	ID (±cor)	ID(rel) & DEP(i)	s COD	*rel COD	ID(rel)	DEP(i)
pəs				*!		
pɐt ^h			*!			
☞ pəsi						*
pɐt			*!			
LP input [pɐt]	ID (±cor)	ID(rel) & DEP(i)	s COD	*rel COD	ID(rel)	DEP(i)
☞ pəs				*!		
pɐt ^h			*!			
pəsi		*!				*
pɐt			*!			

앞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제약의 집합으로 영어의 *bus* [bəs]와

한국어의 “벗([pət])”에서 각각 서로 다른 출력형 즉 어휘 항목을 수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 사용의 단계에서 접미사 또는 토씨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쉽사리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¹¹⁾

- (12) a. 벗이 pəs + i → pəsi
 b. 로봇이 robos + i → robosi
 c. 버스가 pəsi + ka → pəsika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영어 차용어가 한국어의 어휘로 차용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먼저 차용어 어휘를 수용하는 과정과 차용된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차용어 어휘를 수용하는 과정은 한국어 어휘를 수용하는 과정과 여기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두음법칙 등 한 두가지의 현상과 관련된 제약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것이며, 일단 어휘가 어휘 목록에 수용된 후 사용되는 과정은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용어 음운론이 한국어의 음운론과 다르다는 종전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hook*와 *robot*의 음절말에 자음이 있는 형태와 /i/가 삽입된 형태의 서로 다른 출력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였으며, 이 두 형태는 음절말 자음의 파열 여부로부터 비롯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서열을 가진 제약들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ㄷ’ 받침 즉 음절말(coda)의 비파열 비조찰성 설정(default nonstrident coronal)자음의 어휘 형태는 /t/가 아니라 /s/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어의 *bus* [bəs]와 한국어의 ‘벗([pət])’이 ‘동일한 입력형 /s/에서 재등급화되어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진 제약들에 의해 서로 다른 출력형을 가진다’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같은 서열을 가진 동일한 제약들’에 의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bus* [bəs]는 /pəsi/로, ‘벗’은 /pəs/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이들이 후속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또는 토씨와 결합할 때 ‘벗이’와 ‘버스가’처럼 올바른

11. 한국어에서 /s/가 /i/와 같은 음절을 이루면서 /s/의 이음(allophone)인 [j]로 변하는 현상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다루지 않았다. 주어 접미사를 /i/ 나 /ka/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Kang & Kang(2000)를 참조하라.

출력형을 쉽사리 선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 [r] 또는 [l]로 시작하는 차용어나 모음의 변화를 수반하는 차용어들의 수용 등을 다루지 않았다. 차용어와 한국어를 구분하는 ‘두음법칙’ 등 극소수의 제약도 이 논문에서 주장한 틀 속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미. 1996. "한국어 차용어 음운론에 대한 최적성이론 분석." 국어학, 28, 113-157.
 구분석. 1999. "최적성이론에서의 영어 차용어와 모음삽입."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5.1, 59-77.
 이보림, 이숙향, 박천배, 강석근. 1999.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어말 폐쇄음 파열의 인지와 발음 연구." 말소리, 38, 41-70.
 정은. 2001(forthcoming). "한국어 영어 차용어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Bauer, Robert. 1985 "The Expanding Syllabary of Hong Kong Cantonese," *Cahiers de Linguistique Asie Orientale*, Vol XIV.1, 99-111.
 Hideyuki, Hirano. 1994. "A Constraints Based Approach to Korean Loanword." *Language Research* 30.4, 707-739.
 Kang, Hyunsook. 1999. "Affixation to English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5.2, 291-307.
 Kang, Hyunsook and Seok-Keun Kang. 2000. "A Conjoined Constraint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5.3, 331-345.
 Kirchner, Robert. 1996. "Synchronic Chain Shifts in Optimality." *Linguistic Inquiry* 27, 341-350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Oh, Mira. 1996. "Linguistic Input to Loanword Phonology."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 117-126..
 Silverman, Daniel. 1992. "Multiple Scansions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9, 289-328.
 Yip, Moira. 1993. "Cantonese Loanword Phonology and Optimality Theory." *Journal of EastAsian Linguistics* 2, 261-291.
 Yoo, Hyebae. 1998. "A Constraints-Based Analysis of Korean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 147-167.